



남원 인월면민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남원시 인월면에서는 지난 8일, 제28회 인월제 및 면민의 날 행사를 관내 기관 단체장과 주민, 향우 1,0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인월 전통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인월면에서는 매년 조상들의 민족정신을 이어받아 유서 깊은 인월 문화와 전통을 계승 보전하기 위하여 제례를 지내고 있으며, 면의 가장 큰 축제인 면민의 날은 2년마다 짹 수년도에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인월농악단의 풍물공연, 인월제례와 축하공연으로 인월면 실버 댄스팀과 색소폰 동아리의 공연 및 기념식과 민속경기, 노래(장기)자랑 등 풍성한 주민 화합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올해 면민의 장으로 공익봉사장 이정일, 산업근로장 김일수, 효열장 박순덕씨가 수상했으며,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박상민, 김은애, 최선영 주무관에게는 공로장이 수여됐다.

황도연 인월면장은 “행사 준비에 정성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가 11일 2층 회의실에서 서장, 과장, 외부 시민위원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절도 등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된 사건중 사회적 비난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개전의 정 등을 살펴 정상참작 기준표(양형기준)등에 따라 경감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처분감경 제도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 제도이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번사안에 대해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를 변상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김홍훈 장수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국민에게 공감 받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순간의 실수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심층분석 및 객관성을 살펴 정발장 구하기라는 마음가짐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대 서영임·강민지 대학원생, 연구 '우수'

한국지역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서 각각 우수논문상·장려상 수상

전북대학교 서영임 박사과정생(고고문화인류학과)과, 강민지 석사과정생(고고문화인류학과)이 최근 열린 '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각각 우수 논문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부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가 주관한 대회는 다양한 지역 문화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적 특질을 발굴하고, 또 지역문화의 고유성, 다양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지역문화·고유성과 다양성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서영임 박사과정생은 신진연구 분야에서 '전주보주의 관광 상품화와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강민지 석사과정생은 '유적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 연구: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를 중심으로'라는 고고유적 활용 연구논문을 발표해 수상했다.

두 대학원생은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4단계 BK21 사업 인류세 시대, 생물문화다양성 연구를 통한 지역 위기 극복과 미래 구축 교육연구단(단장 임경택 교수)



의 장학 지원을 받으며 지역이 가진 문화자원의 활용, 지역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위기를 극복하는 연구에 힘쓰고 있다.

서영임 대학원생은 "BK21 해외연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연구한 술 문화에 대한 지역연구가 전주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주를 연구하는 데 있어 확장성을 가지게 됐다"며 "추후 연구에는 지역의 문화자원이 관광상품화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지역발전에 힘쓰는 연구에 집중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 오동초 학생들, 전북 119소방 동요경연 연습 마진

남원소방서는 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 동요경연에 대표로 참가하는 오동초 15명 학생들이 창작 음악에 맞춰 '모세의 기적'을 부르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이달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도내 유치부 8개 팀과 초등부 7개 팀이 참가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안전을 즐기며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되는 행사로, 지도를 맡은 오동초 최영복 선생님은 "안무와 노래를 준비해 무대에 서는 기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많은데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행복한 추억을 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철성 대응예방과장은 "어린이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어 감사하다"며, "이번 경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소방안전에 대해 청각적으로 즐거운 방법으로 배우는 동시에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정인원 석사과정생, 한국곤충학회 포스터발표 우수상

전북대학교 곤충계통진화연구실의 농축산식품융합학과 소속 정인원 석사과정생(지도교수 김소라)이 '2024년 한국곤충학회·한국응용곤충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포스터 발표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정인원 학생은 파괴 없이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Micro-CT(Computed Tomography)를 활용해 해충 그룹으로 작용하고 있는 깁꼭지나방과(Stathmopodidae)의 내부 구조를 파악해 종간 차이점을 세밀하게 규명했다.

이는 Micro-CT는 X-ray를 사용해 대상의 단면 이미지를 캡



쳐하고, 이 이미지들을 합성해 3D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세밀한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 의학, 재료 과학, 전자기기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해당 기술은 기존의 개체 손상을 필수적으로 수반했던 종 판별 방식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신종 및 미기록종에 대한 표본을 보존하고, 또 임체적인 분석을 통해 더 다양한 구조와 특성을 파악해 생물 종 다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원 대학원생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김소라 교수님 및 연구실 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해충방제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장수군 장애인체육회 제2기 1차 이사회 개최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은 지난 5일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제2기 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훈식 회장과 신임 이사들이 참석한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장수군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규정 등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장애인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최훈식 장수군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2기 이사회 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감사드린다"며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경찰서, 산사태 우려지역 사전점검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 장수파출소(소장 김병철)는 지난 10일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관내 풍수해 우려지역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산사태 우려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전점검을 통해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했다.

장수군은 지역특성상 지속적인 강우시 산사태 우려지역이 많으며 주로 도로변이나 주택가 인근에도 위험지역이 있어 큰 인명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장수파출소 관내 구(舊)싸리재 도로변, 주택가 인근 등 위험지역 및 과거 산사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군청에 통보하여 지자체와 협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